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질병관리본부

NEWS LETTER

2009년 4월호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임상연구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

3월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상연구지원센터 (National Clinical Research Coordination Center)」 현판식과 개소식을 진행하고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님,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님,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님, 이진수 국립암센터원장님을 비롯한 150여명의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의료기술 발전과 보건의료 산업화에 꼭 필요한 임상연구! 국가가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임상연구 인프라지원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NCRC 임상연구지원센터 National Clinical Research Coordination Center

임상연구지원센터는 국내 임상연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임상연구성과의 통합정보관리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상연구는 신약의 시판허가를 목적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근거중심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 약제나 의료기술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결정하는 임상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목 차 Contents

01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_** 임상연구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
03 **우리는 지금_** 제5회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
04 **News Focus_**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일본뇌염 지역표준실험실 지정
기후 변화로 인한 전염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06 **만성병 조사 · 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_**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
08 **팀소개_** 대사영양질환팀
10 **국내 행사_** 민 · 관이 함께하는 결핵퇴치!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
12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 (GWP) 만들기**



그 동안 국내에서는 다수의 임상연구를 통하여 양질의 성과물을 얻고 있었으나,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정보제공체계가 미약하여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지원센터는 국내 임상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질적 · 양적 향상을 위한 자료관리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거중심 의과학 연구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연구의 최종 성과물인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지침에 대한 분석, 정보제공 등을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명의과학센터 현관에서 진행된 현판식에 이어 2부 순서로 진행된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임상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 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 박소라 단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국내 임상연구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임상연구정보 및 성과의 공유」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한층 높이면서, 보건의료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임상연구지원센터는 국가 지원을 통해 얻어진 임상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임상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모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지금

제5회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

3월 31일에는 병원감염관리학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및 관리'와 '약제내성 실태 및 기전연구'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가 되었지만 의료관련감염과 약제내성균의 증가는 국민 건강의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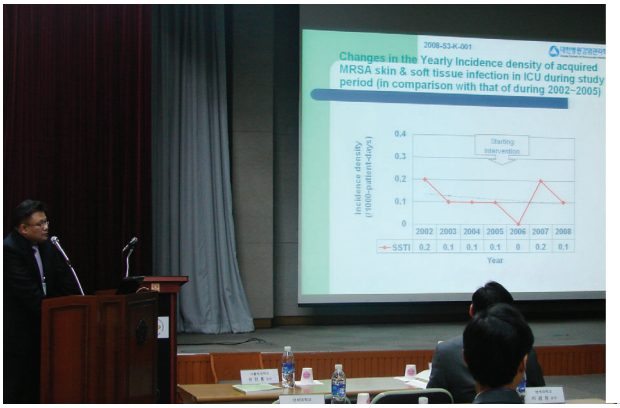
올해로 다섯 번째가 되는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은* "국내 병원감염 감시 및 향후전략", "감염관리 및 지침개발", "그람음성균에서 항균제 내성전", "국내 약제내성 실태 현황" 등 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운영결과로 병원감염 감염률이 2004년 재원일수 1000일당 12.11에서 2007-08년 7.18로 매년 감소추세임이 보고되었다.

제5회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 | 일시 : 3월 31일(화) 09:00-16:10 장소 : 질병관리본부 대강당

I. 국내 병원감염 감시 및 향후 전략	**좌장 | 김준명 (연세의대)**
전국 중환자실 병원감염 실태	이상오 (울산의대)
수술부위 감염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최희정 (이화의대)
병원감염관리 전략개발을 위한 로드맵	송영구 (연대의대)
II. 감염관리 및 지침 개발	**좌장 |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중환자실 MRSA 감염관리 효과 분석	유진홍 (가톨릭의대)
응급실에서 감염관리 지침	이한성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치료지침 개발	정두련 (성균관의대)
III. 그람음성균에서 항균제 내성 기전	**좌장 | 김의종 (서울의대)**
Pan-drug 내성 그람음성간균	이경원 (연세의대)
그람음성균에서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정석훈 (연세의대)
*P. aeruginosa*에서의 efflux pump 발현 및 조절	유정식 (질병관리본부)
IV. 국내 약제 내성실태 현황	**좌장 | 오희복 (질병관리본부)**
국내 주요 항균제 내성 현황	이영선 (질병관리본부)
국내 항결핵제 내성 실태 및 추이	류성원 (결핵연구원)
약제내성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 모니터링	박재원 (가천의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내성	최우영 (질병관리본부)

본 행사를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보건문제임을 재인식하였고 향후 의료 관련 감염 및 약제내성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감시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내성균 관리 및 확산방지 등 의료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 및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병원감염 및 항생제내성 종합대책"을 2009년 5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News Focus_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일본뇌염 지역 표준 실험실 지정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2월 11일자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일본뇌염 실험실 네트워크에 지역 표준 실험실로 지정됨에 이어, 아시아 7개국 일본뇌염 진단실험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실험실 진단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모기를 매개로 유아 및 장년층에 뇌염증상을 일으키는 급성바이러스 질환으로서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북부 지역에서 유행하거나* 풍토병화 되어 매년 약 4만에서 5만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 중 1만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러스 분포지역으로 볼 때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30억 인구가 일본뇌염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2008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서계보건기구 제 17차 기술자문단 회의 (The 17th meeting of The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zation and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에서는 백신수급이 원활치 못한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일부 국가에서 창궐하고 있는 일본뇌염에 대한 표본감시와 관리대책 수립 및 질병퇴치를 위해 서태평양지역에 일본뇌염 실험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의하였다.

일본뇌염 실험실 네트워크는 Global specialized laboratory (GSL, 1개국), Regional reference laboratory (RRL, 1개국), 각 국가별 national JE laboratory (NJEL)로 구성된다. 지역 표준 실험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일본뇌염 백신접종 및 표본감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실험실 시설과 진단요원을 포함한 일본뇌염 진단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주로 주변 국가의 요청 시 일본뇌염 확진실험을 수행하며 진단법 교육프로그램 제공, 실험실 정도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실험실간 연구협력을 수행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8년 11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일본뇌염 진단실험실 운영상황을 평가하였고 2009년 2월 11일자로 질병관리본부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일본뇌염 지역 표준 실험실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것은 과거 일본뇌염의 주요 유행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의 백신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행예측사업을 30년 넘게 수행한 결과 실험실 환자감시 및 진단능력이 다른 나라를 선도할 만한 위치에 올랐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태평양지역 일본뇌염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의 첫 번째 활동으로 *일본뇌염 실험실 진단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2009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된다. 이 워크숍은 세계보건기구, 미국질병통제센터, 일본 NIID의 일본뇌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중국의 일본뇌염 진단 실험실 관계자들에 대한 실험실 진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전염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결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적응 노력이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지난 4월 7일에는 기후변화건강포럼에서 주최하는 월례포럼이『*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변화는 최종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폭염,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생태계변화에 수반한 전염병,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 경제 · 사회적 약자는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건강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의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예방 및 적응 방안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생태, 보건, 의학, 수의학, 독성, 미생물, 기상, 건축, 수질, 대기, 해양, 식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함께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의 학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 담당자,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건강포럼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정부 · 기업 · 학계 · NGO등이 함께 모여 발족하였다. 2008년 11월 8일 창립되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정부기관과 각 대학의 수의학, 의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가 약 11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월례포럼을 통하여 각계의 전문가 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영역을 넘어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T/F팀을 구성 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단계에 있다.

5차 월례포럼은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기후변화 관련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상황과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전염병과 매개체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되었다. 기온, 강수량, 습도 등의 변화는 전염병의 원인 미생물, 매개체의 생태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전염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발표에서는 야생동물, 매개체,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내 감시, 모니터링체계 발표가 있었다.

자유토론에서는 전염병 발생기전을 밝히고 이 내용을 보건의료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만성병 조사 · 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

질병의 양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에는 세균 등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많았으나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한 주거 및 식생활의 서구화, 환경 파괴와 공해, 대기 오염의 증가 그리고 면역 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만성 질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 두드러기 등이 있는데, 알레르기 질환자는 점차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2조원을 상회하여 악성종양(5.5조원), 심뇌혈관질환(5.4조원)에 버금가는 사회적 부담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토피 · 천식 관리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사용 등으로 인해 잦은 재발 및 증상의 악화가 반복되는 등 적정관리가 미흡하여, 천식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아시아 평균의 2배 이상(AIRIAP study, 2000)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현재 인구 천 명당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53.8 명이고, 천식은 29.8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대상의 올바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거중심의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2007년 이후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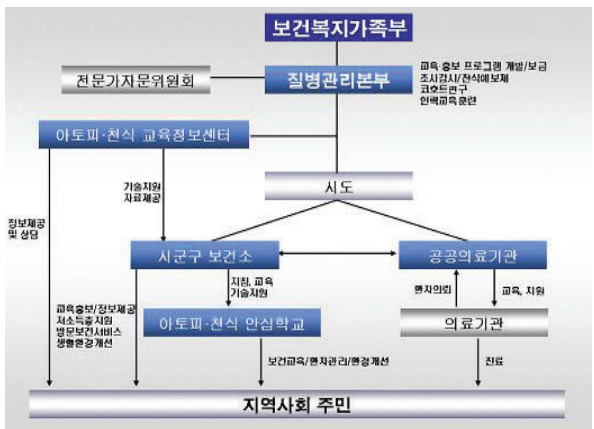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교육 · 홍보 사업

전문 학 · 협회와 함께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알레르기 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의 예방관리수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였으며 TV 공익광고를 제작, 민간학회와의 협력(광고송출에 대한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올바른 예방관리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5월 '세계 천식의 날' 기념 심포지움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여러 교육 · 홍보 자료를 전문학 · 협회의 인증을 거쳐 제작, 보급하고 있다.

보건소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 지원

효율적인 국가 아토피 · 천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수적으로 2008년도 5개 보건소, 2009년에는 42개 보건소를 지정하여 지역사회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의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 · 홍보,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저소득층 환자지원 등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운영지침의 개발 및 보급, 관련지식의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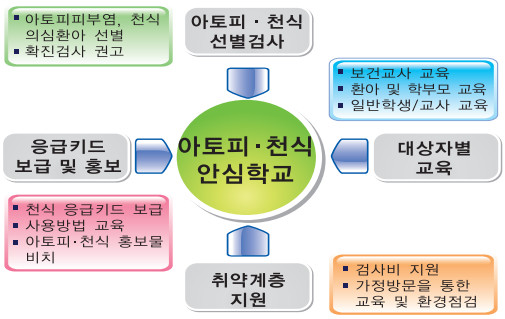
아토피 · 천식 환자 적정 진료 및 관리

아토피 · 천식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환자대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대상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토피 · 천식의 역학과 관리'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전문 학회와 연계하여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거기반의 아토피 · 천식 정보제공 및 관련 보건의료인의 전문교육을 위해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 · 천식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아토피 · 천식의 유병률, 관리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중심의 정책수립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는 퇴원환자 의무기록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존의 조사 · 감시사업에 천식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또한 아토피 · 천식의 원인 및 악화요인 규명 등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관리 방법의 정립을 위해 중장기 아토피 · 천식 원인규명 연구 과제를 발주·관리 중이며, 천식의 예방관리 향상을 위해 천식의 외부악화요인을 분석하여 개발된 천식지수를 이용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천식예보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팀소개

대사영양질환팀

대사영양질환팀은 당뇨병, 비만 관련 세포모델과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당뇨병과 비만의 발생기전 및 예방 · 치료법 개발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소아 비만 코호트 운영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소아비만 발생의 조기진단 및 예방제어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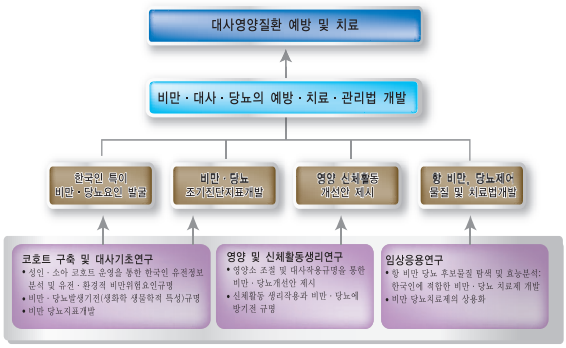
팀 구성원은 늘 출출한 팀원들의 배를 달래주시어 일의 능률향상에 힘써주시는 *송지현* 팀장과 까만 피부에 속눈썹이 매력적인 영원한 젊은 오빠 *김원호* 연구관, 위대한 대한민국 아줌마의 저력을 늘보여 연구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임주현* 연구사, 전생에 유명한 장군이었을 것 같은 호탕한 웃음을 가진 *이혜자* 연구사, 네버랜드에 살고 있는 피터 팬처럼 나이 들지 않는 소녀 같은 *최주선* 책임연구원,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것 같은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계신 아로미 *김정은* 선임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의 또 다른 부로닌 *김지연* 선임연구원, 늘 유머와 독특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준우* 기술연구원, 찰나에 웃는 모습이 류시원을 닮은 토종한국인 *고인욱* 기술연구원, 불가사의한 대식가 새댁 *이효정* 기술연구원, 하얀 얼굴이 포인트인 요조숙녀 *최현정* 기술연구원, 연구실의 알뜰살림꾼 *임성자* 기술연구원, 늘 상냥한 봄처녀 *송은현* 기술연구원, 여느 아이돌스타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꽃돌이 *정원준*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개성만점 팀이다.

주요 연구 사업 내용

비만, 당뇨병 공통 병인 연구를 통한 질환관리기술 개발

주요발달시기의 환경요인 (영양불량 등)과 대사증후군 (비만, 인슐린 저항증 등) 발생과의 상관성연구를 위해 비만 및 대사이상질환관련 생화학지표 및 후보유전자 유전자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을 한다. 이런 실험은 비만 당뇨병 발생에 기여하는 주요 조절인자를 찾아 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신호전달체계 및 조절기능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소아 비만 코호트 역학자료 및 유전적다양성 분석, 그리고 비만, 당뇨병 동물모델을 이용한 여러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조절인자들을 발굴하여 발현 조절 및 기능분석을 통한 당뇨병 발생기전 규명, 치료법 발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에 따른 대사이상 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세포신호전달체계 및 새로운 표적인자들의 변화 추적하여 당뇨병 발생기전을 밝힘으로써 당뇨병 질환 예방 기술을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위험인자들에 의한 대사이상 질환발생관련 주요 조절인자 발굴 및 예방 · 치료기술 개발

비만 · 당뇨병발생에 관련된 위험인자들을 이용하여 대사질환이상 발생 동물모델을 구축하는데 오믹스 기법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주요조절인자 발굴 및 대사체 변화에 따른 조절 신호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발굴된 주요 조절인자들의 기능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생물정보학적, 복합 다중적 대사체분석 등을 활용하고 있고 세포 및 생체 동물 모델 뿐 만 아니라 특이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유도 또는 발현억제 모델을 활용한다. 또한 조절인자들의 기능 및 전사조절, 상호작용, 변형 등 연구 전반에 걸친 분자생물학적 연구기법과 생화학적 특성 연구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외부 병원들과 연계하여 임상환자샘플을 이용한 질환발생에 관련된 유전자 유전적 다양성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등을 통한 이행성연구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비만, 대사당뇨질환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 및 치료기술 개발연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소아 코호트 운영

성인비만으로 이행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비만연구를 위해 2005년 과천 초등학교 기반 코호트를 시작으로 2008년 말 현재 2천여명의 역학 및 임상정보, 생체시료 수집을 하고 있다. 이와 생활습관, 병력, 신체활동정도, 식이조사, 질환지표관련 혈액검사결과, 신체계측치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9년 현재 서울,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확대된 코호트를 구축하였고, 코호트의 질적 향상과 데이터 공개를 추진 중이며, 생활습관성 요인 (환경)-유전적 요인 등의 위험요소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하고 있다.



국내 행사

민 · 관이 함께하는 결핵퇴치!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

제27회 세계 결핵의 날 행사 및 2008년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지난 24일 (사)대한결핵협회 주최로 열렸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공이 큰 이들인 48명에게 정부표창을 하였고, 2008년 결핵관리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 · 도 및 보건소 8개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세계 결핵의 날』은 독일인 의사이자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지 100주년이 되던 해,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던 결핵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됨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올해로 제27회를 맞이하였다.

올해의 슬로건은 *"I Am Stopping TB"*이다.

이날 기념식을 통하여 그동안의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 발생하고 2천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사망하는 등 결핵이 법정전염병 중 발생률과 사망률에서 1위이며,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결핵환자 발생 감소 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로 후진국형 감염실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 결핵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그리고 「결핵퇴치 2030계획」에 따라 새로운 질병관리모델로 금년 2월부터 추진 중인 TB도우미/PPM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기념행사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표창과 복십자대상수여식이 있었다. 정부표창으로 대통령표창은 단국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박재석교수, 국무총리표창은





강원도 보건위생과 목진우, 충청북도 보건위생과 이경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표창은 둔촌고등학교 유현희 외 44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복십자대상 봉사부문은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홍영숙사무관이 수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과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한나라당 손숙미 · 임두성의원 및 결핵 및 보건관련 단체장과 학계 및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 행사 치사에서 우리나라 결핵관리 실태를 벗어나려는 정부의 강한의지를 피력하였으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각종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각계각층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는 축사에서 1975년 우리나라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모습과 끊임없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 정부의 노고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계속되는 양국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2부 행사로 2008년도 결핵관리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결핵관리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평가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전년도 결핵관리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와 보건소에게 질병관리본부장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최우수 시·도는 경상남도였으며 우수 시·도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보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우수보건소는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전라북도 익산시 보건소가 수상하였다.

올해는 『세계 결핵의 날』 기념일에 앞서 3월 22일 에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릴리와 대한결핵협회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는 「희망의 빨간 풍선」 자전거마라톤 대회를 개최되었다. 참가자 전원이 건강한 폐를 상징하는 빨간 풍선을 하늘로 띄우며 결핵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세리머니와 함께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출발하여 순환로 약 7km를 자전거로 달렸다.

마라톤 이외에도 무료 결핵검진, 결핵퇴치 대학생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즉석 사진 이벤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있었다. 이번 대회의 참가비 전액은 국내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기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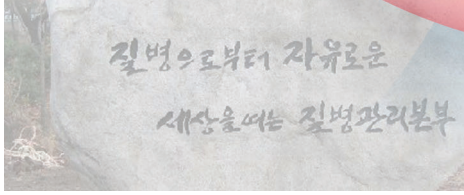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GWP)만들기

4월 3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월례조회에서는 지난해 4월 4일 창간된 「주간 건강과 질병」1주년을 기념하며 원고검독에 기여한 직원들(역학조사팀 강영아, 예방접종관리팀 이연경, 에이즈·결핵관리팀 조은희, 전염병감시팀 이은규, 약제내성팀 정경태)에게 시상을 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도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업무수행 유공자(전염병관리팀 한유리, 총무혁신팀 백형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발 행 일 : 2009. 4월 (통권 제17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배송미, 심혜용,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ISSN 1976-7579
04
9 771976 757908